제주도 유일의 ESCO
(주)도암엔지니어링

(주)도암엔지니어링(대표 오관준)은 지난 1998년 (주)도암기술사라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설립돼 설계와 감리, 토목측량업으로 힘든 IMF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그 후 건축전기, 소방 및 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및 진단에 대한 KAS 9001/ISO 9001인증을 획득(2000년)하면서 (주)도암엔지니어링으로 업체명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전문인력에 대한투자와 기술개발 도암의 경쟁력

▲오관준 대표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도암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실력과 제주 유일의 ESCO로 유명하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설계와 감리부분에 있어 타 업체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암의 이 같은 경쟁력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다. 현재 64명의 임직원대부분이 전기, 소방, 통신, 환경, 기계, 토목, 건축 등 각 분야별 기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인력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의 조화로 타 업체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소를 설치해 제주대학교와 산 · 학간 연구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연구소를 통해 석 · 박사급 인력을 양성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기술력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제주도에 위치해 지역적인 이유로 생겨나는 인력난을 해결하고 외부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보다 자체 인력양성이 우선이라는 오관준 대표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41개소, 고효율기기 교체 고압인버터 분야도 평정할 예정

도암의 주요 ESCO 실적으로는 지난 2005년 11~12월, 광주 전남 · 북 및 제주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실시한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으로 71개소에 등기구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형광등 40W/2에서 고효율 형광등 32W/2로 교체해 8W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또, 2006년 7~9월에는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역시 등 기구교체사업을 진행했다. 오 대표는 복지시설 고효율기기교체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지만 회사의 이윤을 떠나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암은 지난해 70개소 시설과 올해 71개소를 합쳐 총 141개소의 등 교체공사를 시행했다.

ESCO애로사항에 대해 묻자 오 대표는 "제주도에서는 주로 숙박시설과 호텔 등에 ESCO를 많이 제안 하고 있는데 ESCO가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업체들이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총 16억 원을 투자한 '기력3호기 통풍계통 고압전동기 가변속장치' 에 인버터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한 고압전동기의 가변속장치를 발전소에 도입한 것으로 에너지 절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설비 신뢰도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발전사에서 에너지절감을 목적으로 ESCO 방식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화력 내에 설치된 이 사업은 보일러계통용 6/6kV급 고압전동기에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한 속도제어장치를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

제주 화력은 기존설비와의 완벽한 연계 및 다양한 시운전으로 가변속장치의 신뢰도를 확보해 전 사업소로 확대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발전원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암은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설치해 시운전을 완료하고 12월 현재 절감량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전력절감량 데이터도 아주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기업으로 등록해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사업을 진행중인 도암은 제주도 그린빌리지 사업을 설계 · 감리한 바 있다. 또, 동광문화마을, 자구내포구에 대한 150kW 태양광발전설비와 한경풍력 750kW급 2기의 풍력발전설계 및 인허가 업무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제주도내 풍력발전 인 · 허가 및 계획실시 설계를 3개단지 90MVA를 수주해 진행 중이다.

ESCO와 신재생사업까지 뛰어든 도암엔지니어링은 오는 2007년 1월 19일에 인버터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면 고압인버터 분야에서 타 ESCO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보다 더 넓은 분야에 걸쳐 전국적으로 ESCO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모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면

▲인버터실로 이동중인 장면

▲설치된 인버터